



Received: 2021/02/04  
Revised: 2021/03/12  
Accepted: 2021/03/29  
Published: 2021/03/31

**\*Corresponding Author:**

**Kwang-Soob Ko**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Republic of Korea

Tel: +82-61-240-7154

Fax: +82-61-240-7127

E-mail: nama1@mmu.ac.kr

# 정유재란 시기 선조의 출전 명령과 이순신의 출전 의지 및 출전 불가 사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Yi Sun-Shin's Willingness to Follow the Order of King Seonjo to Dispatch the Navy in the Period of Jeongyu War

### 고광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교수

**Kwang-Soob Ko\***

Professor,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본 연구는 정유재란 시기 선조의 출전 명령에 대한 이순신의 출전 의지 조명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선조실록 기록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및 선조수정실록 등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은 핵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유재란 전 선조는 1596년 12월 5일 출전 명령을 내린 후 12월 28일 이순신으로부터 출전을 허락해 달라는 답신을 받았다. 이순신의 출전 허락 요청에 대하여 선조는 1597년 1월 2일 출전을 허락하면서 김응서와 이순신의 협력을 특별히 당부했다. 사실상 합동작전 허락을 하였다. 1월 14일 경 권율이 이순신에게 선조의 출전 허락을 전달하였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출전 허락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한 바로 미루어, 이순신은 강력한 출전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미리 출동시키지 못한 이유는 육군과의 합동작전 준비 문제 및 출전 명령 지연 도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ill of Yi Sun-shin to dispatch troops to King Seonjo's order to dispatch during the jeong-yu war.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Before the jeong-yu war, King Seonjo ordered Yi Sun-shin to dispatch troops on December 5, 1596. King Seonjo received a reply from Yi Sun-shin on December 28, 1596. Responding to Yi's request for permission, King Seonjo allowed the troops to be dispatched on January 2, 1597. On January 14, Kwon-yul delivered the order of King Seonjo to Yi Sun-shin. At this time, the enemy was invading.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king, Yi Sun-shin could not dispatch the navy. Yi Sun-shin had a strong will to engage, but the king's permission was delivered late, so he missed the time of dispatch.

### Keywords

정유재란(Jeong-yu war),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선조명령(Order of King Seonjo),  
이순신 출전의지(Yi Sun-Shin's Dispatching Willingnes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출전 중에 있는 한 국가의 해군 최고지휘관을 체포하여 처벌한 사례는 세계 전사를 통해 흔하지 않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일이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 조선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출전 중에 있는 해군 최고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을 조선 조정은 체포하여 처벌하였을까?

이순신이 체포 및 파직되어 백의종군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첫째,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는 '부산왜영화재 허위보고 사건'이다. 이순신은 부하들의 허위보고를 사실로 알고 부하들의 공을 내세워 포상을 건의했으나, 훗날 부하들의 거짓말이 밝혀져 이순신이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둘째, 적을 놓아주어 나라를 배신한 죄는 '요시라의 반간계 사건'이다. 요시라의 첩보를 이순신에게 알려주었으나 이순신은 출전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출전하지 않았고, 결국 적을 바다에서 막지 못하여 적을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죄는 원균이 자기의 '군공'을 이순신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한 데서 야기된 사건이다.

특히 이순신에게 덮여씌운 상기 세 가지 죄목 중에서 결정적인 죄목은 두 번째로 바다에서 적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이순신의 파직과 백의종군의 핵심 죄목인 요시라의 반간계 사건은 적장 고니시측 첩자 요시라가 전

해준 첩보를 입수한 선조가 적의 침공 날짜 및 적장의 동선 등이 포함된 첩보를 통제사 이순신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출전 불가 사유를 들고 출전하지 않아 적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순신의 출전 불가 사유는 첫째, 적의 간계일 것이고, 둘째, 해상에서 적에게 기습당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대군을 동원하면 복병할 수 없고, 소군을 동원하여 복병을 많이 두면 만일의 경우가 위험할 것이라는 데 있었다[8].

1597년 1월 27일 어전회의에서 적 침공에 대한 이순신의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1월 초 ‘부산왜영화제’ 사건도 거론하며 용서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2월 6일 이순신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2월 26일 압송되어 3월 4일 구금된 이후 심문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난을 받았으나, 다행히 사형을 면하게 되고 4월 1일 방면되어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정탁의 간절한 이순신 구명 상소문이 선조를 감동시켜 극형을 면하게 되었다. 정탁이 이순신의 죄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선조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일명 정탁의 ‘논구이순신차’에 근거한 친구차 내용은 아래와 같다[9].

“요즈음 또다시 쳐들어 왔는데 이모가 미쳐 손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는 필시 무슨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변방의 장수들이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장군 스스로는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히 내린 분부가 그때 곧바로 전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며, 또 바다의 바람 사정이 좋았는지 어땀는지, 그리고 뱃길도 편했는지 어땀는지 또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래 내용은 정탁의 약포집에 나와 있는 ‘이순신옥사의’에 근거한 친구차 내용이다[10].

“왜노들이 준동하여 쳐들어올 적에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그사이 정세에 대해 논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제때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바다에서 바람의 형세가 순풍이었던지 역풍이었던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위 두 자료의 내용은 모두 정탁의 구명 상소문으로 핵심 내용은 같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첫째, 당시의 변방의 지휘관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왕의 출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적을 치라는 선조의 명령이 제

때에 이순신에게 전달되었는지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 조정에서는 당시 현장의 해상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정탁은 이순신이 출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상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이순신이 가토군을 사전에 진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탁은 과거 많은 적인들을 직접 문초해 본 경험자로서 또 상소문을 올리기에 전에 많은 상황을 파악하였기에 위험을 감수하며 선조에게 이순신 구명을 한 사람이다. 정탁이 이순신의 죄에 대한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이행치 못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이순신 사후 다양한 서적이거나 문서 등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간된 다양한 자료들의 내용 중 선조가 적의 침공 사실을 인지한 시점, 적의 침공 첩보와 출전 명령이 이순신에게 전달된 시점, 전달자, 적 첩보의 내용 및 출전 명령 접수 후 이순신의 조치 등이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순신 사후 현재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이충무공행록’과 유성룡이 쓴 ‘징비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및 이충무공전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이들 자료에 기록된 관련 내용들마저 다소 차이가 있다[11-13].

후세의 대부분 자료들도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고 출전 불가 사유를 들어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하여 선조수정실록 2월 1일 기록 또는 이충무공전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순신이 출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전 건의 내용이 실린 선조수정실록 1월 1일자 기록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1월 1일자 기록은 이순신의 강력한 출전의지로, 2월 1일자 기록은 합리적 출전 거부 또는 항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선조의 출전 명령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이순신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유재란 직전 선조의 출전 명령에 대한 이순신의 출전의지 및 출전을 거부할 만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 사료 검토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 1.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유재란 시기 적의 침공에 맞서 싸우 고자 했던 이순신의 출전의지를 조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조가 이순신에게 보낸 명령과 이순신의 답신, 정탁의

구명 상소문에도 제기된 선조의 출전 명령 전달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가 크다. 즉 출전 명령은 언제 어떻게 이순신에게 전달되었으며, 명령을 수령한 시점에 이순신은 어떤 작전환경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충무공행록과 징비록 및 선조수정실록 등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정유재란 발발 전후 선조실록과 고위 관리 및 군 지휘관들의 장계 내용을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다음 이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역사자료 분석

### 2.1 역사자료 관련기록 분석

이순신이 체포 및 파직되어 백의종군을 하게 된 배경의 큰 요소였던 '요시라의 반간계 사건' 등에 대하여 기록한 역사 자료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이 늘어났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들은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및 이충무공전서 등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 및 이충무공전서는 모두 이순신 사후 시차를 두고 저술된 자료이다. 징비록은 유성룡이 1604년경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기에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전쟁의 원인과 상황, 군국 정부에 관한 문서와 기록, 류성룡 자신이 해결한 정책적 문제, 자신의 시절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충무공행록은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쓴 이순신 전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으로 저술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사망한 1619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선조수정실록은 선조실록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1641년 이식이 선조실록의 개수를 건의하면서 편찬 논의가 시작되었다. 1643년 음력 5월 본격적으로 편찬이 개시되었고, 중간에 중단되다 1657년에 완성되었다. 이충무공전서는 1795년 정조의 지시에 따라 유득공, 윤행업 등이 편찬, 간행한 충무공 이순신의 유고 전집으로 총 14권 8책으로 구성된 이순신 연구 및 임진왜란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다.

위의 역사자료 중 선조실록을 제외한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 및 이충무공전서는 모두 이순신 사후 쓰여진 기록물이다.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기록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충무공행록의 경우 이분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근거하여 쓴 기록 및 이순신의 장계 등은 비교적 근거가 있으나

선조의 출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기록 등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선조수정실록의 경우도 관련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 근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선조수정실록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이충무공전서의 기록도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징비록의 경우 유성룡이 어전회의 등에서 얻은 정보 등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정유재란 전후의 선조실록에는 전쟁지휘부였던 조정에 보고되는 다양한 군사정보를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어전회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선조실록은 전시 전략회의 내용을 기록한 일지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정유재란 전 이순신 관련 기록은 당사자 생존시의 기록으로 대부분 고위 관리 및 이순신이 올린 장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건 및 상황 발생시점, 기록시점, 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실 여부의 신뢰도가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및 선조수정실록 등과는 차이가 있다.

#### 2.1.1 징비록의 기록

요시라가 김응서에게 은밀하게 말하였다. “우리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 지금 이 회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가토 기요마사 때문이라며 장군은 그를 무척 미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 날에 가토가 바다를 건너올 것인데 조선은 수전에 능하니, 만약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해평군 윤근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임금께 아뢰고 이순신에게는 나가 싸울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의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주저하고 있었다.

이즈음 요시라가 다시 와서 말하였다. “가토가 이미 상륙하였다. 조선은 어째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척하였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이순신을 비난하며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 2.1.2 이충무공행록의 기록

1596년 겨울 거제도에 진을 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위엄과 명망을 두려워해 온갖 계책을 짜내고 있었다. 궁리 끝에 그는 자신의 부하 요시라로 하여금 반간계를 꾸며 아군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1597년 1월 21일 권율 도원수가 한산도에 이르러 이순신에게 머지않아 가토가 다시 온다고 하니 수군은 반드시 요시라의 말대로 따르라고 하였다. 권율이 육지에 돌아간 지 겨우 하루 만에 응

천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1월 15일 가토가 장문포에 와 닿았다고 했다[12].

### 2.1.3 선조수정실록 기록

선조수정실록 1597년 1월 1일 기록은 다음과 같다.

통제사이순신이 치계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이미 통신하며 왕래하였는데도 흉적이 그대로 변경에 있으면서 아직도 틈을 노리어 침략할 계책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분개스럽습니다. 신이 수군을 뽑아 거느리고 부산 근처로 진주하여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일사의 결전을 하여 하늘에 사무친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만일 지휘할 일이 있거든 급히 회유를 내려주소서[14].”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평행장(고니시)과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서로 통하여, 요시라가 그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그가 말한 바가 마치 가등청정(가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믿었다. 이 때에 왜적이 재침을 모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수군을 꺼려했고, 그중에서도 더욱더 순신을 꺼렸다. 이에 요시라를 보내서 말하기를 ‘강화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로 가등청정(가토)이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만약 그를 제거하면 나의 한이 풀리게 되고 귀국의 근심도 제거될 것이다. 모월 모일에 가등청정(가토)이 어느 섬에서 잘 것이니, 귀국에서 만약 수군을 시켜 몰래 잠복해 있다가 엄습하면 결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응서가 이로써 보고하니, 상이 황신을 보내 순신에게 비밀히 유시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북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다[13].”

### 2.1.4 역사자료 분석 결과

상기 네 역사자료에 기록된 내용 중 이순신에게 선조의 출전 명령이 전달된 날짜를 명기한 자료는 1597년 1월 21일로 기록된 이충무공행록이 유일하다. 이충무공행록에는 권율이 출전 명령 전달자로, 선조수정실록에는 황신이 전달한 것으로 기록된 부분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시차를 두고 저술된 저서에 기록된 출전 명령 전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조수정실록 1월 1일자 기록은 이순신이 출전

하겠다고 선조에게 출전 허락을 해달라는 출전 건의 장계의 내용이다.

또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 모월 모일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이순신에게 전달된 첩보에 침공 전 가토의 동선도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록상으로 조선 조정은 가토가 바다를 건넌 후에야 적의 침공 사실을 알았다.

징비록의 저자 유성룡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전후의 비상사국에 국왕과 함께 직접 전황을 논의하고 대책을 다루었던 선조의 최측근 참모였다. 징비록의 기록에는 이순신에게 선조의 출전 명령이 전달된 날짜 및 전달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이순신이 출전하지 못한 이유를 적의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주저하고 있었다고 표현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2 후세 연구자들의 관련 자료 분석

후세 이순신 연구자들의 연구물에도 이순신의 죄목 중 가장 큰 요인이었던 요시라의 반간계 사건도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서술하였지만 어떤 자료를 인용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후세 이순신 연구자들이 저술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나타난다.

이순신이 출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히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이나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2,4-6,17-19]. 그러나 이순신에게 선조의 출전 명령이 전달된 날은 대부분 이분의 이충무공행록에 기록된 1월 21일, 이순신에게 선조의 출전 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권율 또는 황신으로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2,15,20]. 또 일부 자료에는 이순신에게 선조의 명을 전달한 시기를 1597년 1월 14일로 기록은 하고 있으나 전달 과정 등 관련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다[4,17,19]. 즉 과거 자료들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순신이 가토군 침공 전에 선조에게 강력한 출전의지를 보이며 출전 허락을 요청한 1597년 1월 1일자 기록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조명하거나, 이순신이 왕명을 받은 시점에 주목하여 당시 이순신이 취한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이나 이충무공전서를 근간으로 출전할 수 없었던 이유를 특별한 의문 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문제의 제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탁은 이순신 구명 상소에서 선조의 출전 명령이 이순신에게 제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순신이 가토군 침공 전 출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변호를 한 바 있다. 또 사료 분석 결과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은 시점과 이순신에게 명령을 전달한 사람 등이 자료마다 다르게 서술된 사례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1597년 1월 1일자 선조수정실록에 가토군 침공 전 이순신이 선조에게 출전 허락을 해달라는 출전 건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조수정실록 2월 1일자에는 선조의 출전 명령에 대해 출전 불가 사유를 들어 출전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전 의사가 강했던 이순신이 왜 출전을 감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다.

가토 침공 전 출전을 하지 않았던 이순신은 선조실록 1597년 2월 23일 기록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가토군 침공 후인 2월 10일 육군 장수인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함께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이순신이 가토 침공 전 출전 불가 사유로 들었던 것 중 가장 우려했던 점은 부산으로 출병할 경우 안골포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의 후방 기습공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월 10일경 안골포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의 위협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소멸되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당시에 안골포에 적선 40여 척, 가덕도에 적선 20여 척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선조실록 2월 23일 권율의 장계에서 확인된다[30]. 가토군 침공 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토 침공 전보다 안골포나 가덕도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의 전력은 보강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출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 침공 전 선조에게 출전 허락 요청까지 했던 이순신이 출전을 하지 않았던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조가 출전 명령을 내린 시점, 출전 명령의 내용, 전달 과정, 전달 시점 등을 포함한 선조의 출전 명령에 관련된 선조실록 기록을 순차적으로 검토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 4. 정유재란 발발 전·후 선조실록 관련기록 분석

#### 4.1 1596년 선조실록 기록 분석

##### 4.1.1 10월 5일 - 10월 21일

1596년 10월 5일 선조는 조정에서는 도체찰사 이원익으

로부터 적의 동태 및 일선 장수들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적들은 여전히 부산, 안골포 및 가덕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선조는 통제사 이순신의 근황을 물었고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는 전공이 컸으나 이후 군무에 태만하다고 했다며 이순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나, 이원익은 이순신이 경상도에 있는 장수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21일 원균은 성질이 매우 거세어 절제하기가 어렵고 다투기는 하지만 전투에 임해서는 제법 기용할 만하다는 이원익의 보고에 선조는 “국사를 위하여는 일이 매우 정성스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21].

##### 4.1.2 11월 1일 - 11월 27일

11월 1일 왜적이 쳐들어 올 경우에 대비하여 한산도의 수군통제영이 전략기지로 적합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날 논의 중 관심을 끈 것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제도로의 상륙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왜군이 침입하기 전에 거제도의 물길을 끊고 거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청야작전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11월 3일 명나라와의 강화조약에 불만을 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군을 파병하여 조선을 치겠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명나라 사신들과 함께 도요토미를 만나러 갔던 조선의 통신사 황신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날 보고 내용은 요시라수하 신시료에게서 입수한 내용이였다.

11월 5일은 수군통제영이 있는 한산도의 수군기지는 전선을 숨기기에 적합하여 선불리 한산도의 수군을 거제로 옮기기 어렵다는 대신들의 보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침범해 오는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거제도 장악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다. 선조는 추후 거제도로 수군을 진주시켜 왜군의 침입에 대하여 제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순신에게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했다. 정유재란 전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첫 명령이었다.

11월 27일 도원수 권율은 요시라에게 벼슬을 주자고 건의하였고, 선조는 요시라에게 뇌물과 함께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국왕 스스로 요시라를 첩자로 공작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로 보았으며 극비에 추진되었다. 며칠 후 비밀히 국왕의 지시로 비밀리에 요시라와 평경직에게

침지의 벼슬이 제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1597년 1~2월 사이에 적이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22].

#### 4.1.3 12월 1일 - 12월 28일

12월 5일 가토의 1~2월 사이 침공에 대비하여 통제사 이순신에게도 특별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순신에게 내린 지시는 다음과 같다.

“청정(가토)이 1~2월 사이에 나온다고 하니, 미리 통제사로 하여금 정탐꾼을 파견하여 살피게 하고, 혹 왜인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그가 나오는 기일을 말하게 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날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상책이다. 다만 바다를 건너오는 날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이 기록은 정유재란 전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으로 1597년 1~2월 적 침공이 예견되니 도해 날짜를 파악하여 적을 요격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했다.

12월 8일 어전회의에서는 “왜적 가토가 나올 때 해상에서 요격하라는 성상의 교지는 지극히 타당합니다”라고 훌륭한 교지라며 선조를 치켜세우기도 하였다. 선조가 12월 5일 통제사 이순신에게 도해차단 지시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대신들은 선조의 명을 받들어 도체찰사 이원익으로 하여금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결과 보고까지 하였다. 또 12월 5일 국왕도 가토가 바다를 건너는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 바, 왜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가토의 바다 건너는 일에 대하여 정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일은 극비 사항으로 선전관을 파견하여 남쪽에 있는 도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에게 알려서 때를 놓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정에서는 적의 침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토가 언제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진격하는지 그 날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간첩 요시라를 잘 활용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사헌부 보고가 있었다.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

“선전관 조영이 통제사 이순신에게 유지를 가지고 갔다가 이순신으로부터 서장을 받아 온 일이 있는데 결봉투에는 뜯어본 흔적이 뚜렷이 있고 서장 내에 기록한 월일의 숫자에 획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 그 서장을 가져다 보니, 결봉투를 뜯어본

흔적은 알 수 없으나 날짜에 획을 고쳐 그 흔적은 분명하였 습니다[23].”

위 사헌부 보고 내용은 12월 5일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하명에 대한 이순신의 비밀 서장이다. 이날 이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4.2 1597년 선조실록 기록 분석

### 4.2.1 1월 2일

1월 2일 선조는 이순신으로 보이는 장수로부터 올라온 출전 건의 요청에 대하여 체찰사 이원익으로 하여금 편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일은 조정에서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 허다한 절차를 멀리서 지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의논이 이러하니, 체찰사로 하여금 급히 편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되 여러 장수가 협력해서 하고 공을 다투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일을 성공하면 마땅히 김응서와 이순신을 함께 수공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각별히 두 사람에게 내리는 유지에 써넣도록 하라[3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일’이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인데,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날 어전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하급자가 임금에게 허락을 건의한 내용임을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건의한 내용일까? 불과 4일 전 1596년 12월 28일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낸 비밀문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선조가 직접 나서서 지휘하기 어려우니 체찰사 이원익으로 하여금 지휘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체찰사 이원익에게 지휘권을 위임했다. 육군 장수인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수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특별히 상호 협조를 강조하였다. 이로 보아 건의 요청서를 보낸 사람은 김응서 또는 이순신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일 전 이순신으로부터 비밀문서가 도착했으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또 당시의 상황은 바다를 건너는 적을 바다에서 막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그렇다면 이 건의 요청은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보낸 비밀문서로 12월 5일 선조가 내린 지시에 대한 문서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은 해전 출전시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중요시한 점, 또 선조가 육군 장수인 김응서와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한 점 등으로 보아 이순신의 출전 건의 요청서에는 수륙합동작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을 다투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는 “일을 성공하면 마땅히 김응서와 이순신을 함께 수공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선조 역시 가토군을 치는데는 수륙합동작전을 중요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 4.2.2 1월 19일

이날 경상도 우병사가 요시라에게서 1월 11일 얻은 첩보 장계가 알려졌다. 핵심은 1월 4일 대마도에 도착하여 순풍이 불면 바다를 건널 것이라 했으나, 이 장계에 정확한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요시라도 가토군이 바다를 건널 날은 모르고 있었다. 요시라는 조선 수군이 거제도에서 정박하고 있다다가 가토군이 바다를 건널면 나가서 치라고 했다고까지 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조선의 적장의 한 사람인 고니시의 하수인 요시라가 고니시의 정적이며 같은 나라 장수인 가토를 치라고 첩보를 제공해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요시라가 조선측에 준 첩보 내용에는 가토의 도해 날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4].

#### 4.2.3 1월 21일

가토군이 바다를 건넜다는 정보가 조정에 처음으로 보고됐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가토군이 바다를 건너 침공했다는 정보가 조정에 처음으로 보고된 충격적인 날이다.

도체찰사 의정부 우의정 이원익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기장 현감 이정견의 치보에, 청정이 이달 13일에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먼저 온 배가 2백여 척이라 하였고, 15일에 이정견이 또 치보하기를 ‘왜의 큰 배 1척과 왜노 70여 명 및 왜장 희팔이 즉시 부산에 도착하여 패문을 보냈다’ 하였습니다.[15]”

도체찰사 이원익이 남쪽 지방 순찰 중 기장 현감 이정견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다. 13일 다대포에 가토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이보다 먼저 도착한 배가 2백여 척 된다고 했다. 13일보다 앞서 이동중인 가토군을 식별했다는 의미이다.

조정에서는 가토가 조선 땅에 침공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방어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도체찰사 이원익의 보고로부터 가토군 침공이 사실로 확인된 이날 요시라의 첩보 내용도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요시라의 첩보에는 가토가 조선에 침공할 것이라는 예견된 이야기로 이전의 첩보와 비교하여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요시라의 가토의 도해 날짜는 포함되지 않았다.

#### 4.2.4 1월 22일

이날 선조는 하루 전 체찰사 이원익에 이어 두 번째로 경상도 제진 위무사 황신으로부터 입수된 가토군의 침공 사실을 보고 받았다. 황신의 보고에는 가토 관하 1백 50여 척과 휘하 1백 30여 척이 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서생포로 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니시가 조선이 바다에 나가 미리 가토를 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애석하다고까지 하였다고 했다. 고니측(요시라)이 첩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토를 치지 않았다고 조선 조정을 힐책하며 이간질하는 내용이다. 고니시측은 1월 13일까지도 가토 침공일을 알려주지 않았다. 가토는 1월 12~14일 침공하였다. 고니시측은 이동중인 가토군을 식별하고 알려주었거나 이동 완료 후 알려주고 마치 미리 알려준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내부 분열을 도모한 것이다[25].

#### 4.2.5 1월 23일

김응서로부터도 가토 침공 사실이 보고되었다. 선조가 적의 침공 사실을 보고받은 세 번째 보고이다. 김응서의 장계에 따르면 “12일에 풍세가 매우 순조로워서 가토 관하의 왜선 1백50여 척이 서생포로 나왔고, 가토가 거느린 관하의 왜선 1백30여 척은 출발한 뒤에 풍세가 동북에서 불어 거제도도 가지 못하고 가덕도에 유박하고, 14일에 다대포로 향하여 진을 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에 더하여 고니측이 “그대 나라 일은 매양 그러하니 후회해도 소용없다. 가토가 이미 바다를 건너왔으니, 전날 내가 한 말이 가토의 귀에 누설될까 걱정된다. 모든 일을 비밀이 하도록 힘쓰자”라고 했다 하였다[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니시측은 사전에 가토의 침공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사전에 가토를 치지 못한 것을 질책하듯 비아냥거리며 술수를 부렸다.

이미 하루 전 장계와 반복되는 가토가 부산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긴 황신의 장계도 공개되었다. 이날 황신의 다른 장계도 보고되었다. 이것은 1월 15일 올린 것으로 언제



누가 선조의 어떤 명령을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에게 전달했는지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1월 15일 황신의 장계 주요 내용이다.

“이달 13일, 신이 삼가현 달려가 도착했는데, 길에서 도원수는 의령에서 이미 한산도로 향했고 도체찰사 역시 경주에서 안동으로 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은 사기가 급한 듯하여 갈 길을 돌리어 면대하여 의논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곧바로 의령에 도착해 병사 김응서와 함께 편의하게 처리하기를 의논하고 한편 도체찰사와 도원수가 있는 곳에 의논을 통했는데, 마침 요시라가 벼슬을 받는 일로 의령에 있어 신이 그와 상견하였습니다. 요시라가 말하기를 ‘청정이 이미 대마도에 와 있으면서 바야흐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행장 등이 조선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부간에 소식이 없어 매우 걱정하고 있다[16].’

이 장계에 따르면 황신은 1월 13일 삼가현(권율 도원수 지휘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권율이 한산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가현에서 의령으로 가서 김응서와 만났고, 함께 요시라로 가토 첩보를 얻었다. 요시라는 황신에게 ‘가토가 이미 대마도에 와 있으면서 바야흐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고니시 등이 조선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부간에 소식이 없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요시라는 1월 13일까지도 가토군이 대마도에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날은 가토군은 이미 서생포에 도착했고 계속하여 이동 중이었다. 황신은 요시라의 말대로 조정에 1월 15일자 장계를 올렸다.

정유재란 전 고니시측(요시라)이 조선의 고급관리와 지휘관들을 수없이 접촉하며 상당한 첩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토 침공 날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또 이 장계에서 시사하는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점은 황신이 삼가현에서 권율이 이순신을 만나러 한산도로 갔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한산도의 이순신을 만나러 간 권율도 가토의 도해 사실을 모르고 갔음이 밝혀지는 셈이다. 의령과 한산도 간 거리로 보아 권율이 한산도 이순신을 만난 시점은 14일경으로 추정된다. 권율은 가토의 도해 사실을 모르고 이순신을 만나 선조의 출전 명령을 전한 것이다.

1월 23일부터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책임론이 급부상한다. 선조는 고니시가 손바닥 보듯 상세한 정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토를 막지 못했다고 대신들을 질책했다. 특

히 이순신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다. 원균을 지지하는 대신들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 4.2.6 1월 27일

선조와 대신들은 이순신이 거제도도 수군을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결과적으로 도해 차단에 실패했다고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이순신의 탄핵을 논의했다[26].

유성룡은 고니시의 움직임에 보고하였다. 고니시의 군사 가두치(섬진강 하류)의 지리를 정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훗날 남원을 치기 위하여 상륙지점을 정탐하는 일이다. 이 얼마나 간교한 고니시인가? 불과 며칠 전까지 가토를 치라고 조정을 압박하던 자가 가토의 도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조선의 남원성을 치려고 준비중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고니시측이 간간히 흘려준 첩보를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간 조선 조정의 전쟁 지휘 전략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왜군은 1597년 8월 5일 섬진강 하류 두치진에 상륙하고 8월 16일 남원성 함락을 했다[29]. 이날 앞에서도 언급해온 바와 같이 군사 징집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수군 징집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정부의 호령이 먹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어전회의 논의 중 이순신 탄핵이 처음 공론화되었다. 판증추부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한산도에 물러나 지키고 있어 이번 대계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대소 인신이 누군들 통분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앞서 선조의 전년도 11월 5일 첫 번째 지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조는 11월 5일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거제도도 수군이 이동하여 방어하기를 원했고, 이순신에게 거제도도 수군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두수는 이순신이 거제도도 수군기지를 옮기지 않아 한산도에서 주둔하고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가토의 도해 차단을 못했다고 이순신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날 이순신이 수군기지를 거제도도 옮기지 않아 결국적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유성룡과 이정형이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성룡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하였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도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



고 하겠습니까. 다만 체대하는 사이에 사세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변사로서 어찌 이순신 하나를 비호하겠습니까.”

더불어서 “장수도 뜻이 차고 기가 퍼지면 교만하고 게을러진다고 하며, 무장은 기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다고” 이순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유성룡이 이순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아 정유재란 전 거제도 방어계획은 조정의 중요한 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계달이란 신하가 왕에게 건의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라는 말은 1596년 11월 5일 선조가 이순신에게 거제도 방어를 검토 지시한 것에 대해 이순신이 이미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선조와 이정형의 대화에서 명확해진다.

다음은 이정형의 보고이다.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데다가 적들이 천심을 알 수 없고, 거제도도 그만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뿐더러 또 건너편 안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조가 하문하기를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의 생각은 어떤가?” 하자, 이정형이 아뢰기를 “신 역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이순신을 말한다. 즉 이정형이 보고한 내용은 바로 이순신이 선조에게 전략적 이유를 들어 한산도의 수군을 거제도로 이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한 내용인 것이다.

정유재란 전 전쟁지휘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조와 유성룡은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거제도 방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의 침공 사실이 밝혀진 후 이순신의 탄핵 논의 초기에, 거제도 이진 불이행 건을 들어 이순신의 실책으로 몰아가며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결국 선조는 부산 왜군 진영 화재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무장으로서 조정을 경멸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원균을 등용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좌의정 김응남, 유성룡, 윤두수 등이 선조의 하명에 동조하였다. 이날 이덕형 및 김수가 원균의 문제점을 지적은 했으나 원균을 수군 선봉장으로 삼으려는 선조의 단

호한 의사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순신 탄핵에 대한 논의는 수 차례 있었다. 정략은 이순신에게 죄가 많으나 위급할 때 장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 4.2.7 1월 28일

선조는 통제사 이순신이 마음대로 기망하고 적을 토벌하지 않아 가도가 바다를 건너게 했으므로 용서할 수 없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세우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균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겸 통제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균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지 며칠 만에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이순신과 합심하여 서로의 갈등을 없애고 공을 세우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날 선조는 원균을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 지시를 내렸으나 여전히 이순신의 삼도수군통제사 직책은 그대로 유지시켰다[27].

#### 4.2.8 2월 4일 - 2월 23일

선조가 이순신과 원균에 인사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모든 일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사헌부는 통제사 이순신을 잡아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국왕에게 건의했고, 선조는 2월 6일 김홍미에게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28].

2월 23일 권율의 장계가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0].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치보에 10일은 일기가 온화했다. 저와 통제사·경상 우수사가 일시에 전선 63척을 거느리고 해뜰 무렵에 장문포에서 배를 띄워 미시에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니, ... (중략) ... 부산에는 왜적의 무리가 7천여 명이나 되고, 가옥의 숫자는 1천여 좌이며 배의 척 수는 대소선을 합하여 모두 70여 척이다. 안골포의 왜적 수는 1천여 명, 가옥 수는 2백여 좌, 선척 수는 40여 척이고, 가덕도는 왜적 수가 5백여 명, 가옥 수는 1백여 좌, 선척 수는 20여 척이었으며, 죽도는 강의 어귀에서 멀리..... (후략)”

위의 기록으로부터 이순신은 2월 10일 육군 장수인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함께 전선을 이끌고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사실상의 수륙합동 작전을 개시했다. 또 장문포에서

전선을 띄운 것으로 보아 거제도까지 조선 수군이 진입한 사실과 여전히 안골포와 가덕도에는 상당한 적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종합분석

### 5.1 고니시(요시라)측은 결정적인 순간 가토 침공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기록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정유재란 전 요시라는 가토 도해 전 침공 날짜를 조선측 누구에게도 제공하지는 않았다. 요시라가 1597년 1월 13일까지 이 사실을 몰랐거나 가토가 1월 12~14일 도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분이 깊었던 김응서와 황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 5.2 이순신은 가토 침공 전 선조에게 출전 허락 요청 장계를 올렸다

선조수정실록 1597년 1월 1일자 가토 침공 전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는 이순신의 출전 불가 사유와 출전 불이행 내용이 서술된 2월 1일 기록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조명을 받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순신의 강력한 출전 의지가 담긴 출전 허락 요청 건의서가 선조수정실록 1월 1일자 기록에 확인된다. 선조수정실록 1월 1일자 이순신의 출전 허락 요청 건의를 1월 1일 전·후의 선조실록의 기록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선조실록 1596년 12월 28일 기록에 따르면 어전회의에서 사헌부는 이순신에게 선조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순신으로부터 답신을 받아온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 1597년 1월 2일 어전회의에서는 이순신으로 추정되는 장수가 보낸 출전 건의 요청서가 보고되었다. 선조수정실록 1월 1일 기록에서 이순신의 출전 허락 요청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선조실록 1월 2일 어전회의에서 선조가 출전 허락을 한 것은 이순신의 출전 건의 요청에 따른 것임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 5.3 이충무공행록 기록 분석

한양에 소재한 조정에서 가토의 침공 사실을 인지한 날은 1월 21일이었다. 한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338 km 정도 떨어진 변방의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에게 같은 날 선조의

명령을 권율이 전달했다는 이충무공행록의 기록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권율이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전달하려 한산도에 간 날은 앞의 선조실록 1월 23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월 14일경으로 확인되었다. 1월 21일 출전 명령 전달일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 5.4 선조의 출전 명령과 출전 허락 분석

앞서 살펴본 선조실록 분석에 따르면 적이 조선을 치겠다는 첩보를 입수한 1596년 11월 3일부터 1597년 1월 가토군이 부산에 도착한 사실을 처음으로 조정이 인지한 날인 1597년 1월 21일까지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지시는 총 3회로 나타난다. 첫 번째 내린 지시는 1596년 11월 5일 한산도 기지를 거제로 이진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596년 12월 5일 가토 침공에 대비 침공 날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하라는 지시였으며, 세 번째는 1597년 1월 2일 체찰사 이원익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이순신과 김응서를 중심으로 작전을 추진하라는 지시였다.

첫 번째 지시에 대한 이순신의 결과 보고의 내용은 1597년 1월 27일 어전회의 중 이순신이 거제로도 수군기지를 옮기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성룡, 이정형 및 선조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두 번째 지시에 대해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낸 비밀보고서가 1596년 12월 28일 선조실록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선조실록 1597년 1월 2일 기록과 선조수정실록 1월 1일자 기록에서 확인된다.

세 번째 지시는 이순신의 출전 요청에 대해 1월 2일 출전 허락을 한 것으로 이순신과 김응서에게 서로 공을 다투지 말고 특별히 협조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육군 장수와 수군 장수가 상호 협조하라는 것은 차질없이 합동작전을 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 1월 2일 이원익에게 위임한 선조의 출전 허락 명령은 1월 14일경 권율에 의해서 한산도의 이순신에게 전해졌다. 당시의 정상적인 물리적 소요 기간보다 늦게 도착한 것이다.

### 5.5 선조수정실록 2월 1일 기록 분석

선조수정실록 2월 1일 핵심 내용은 가토 도해 일자 및 가토의 동선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순신에게 황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전달하였고, 이순신은 출전이 어렵다고 사실상 출전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2월 1일자 기록이 사실이라면 황신은 가토가 서생포 및

다대포에 부대를 이동시킨 1월 12~14일보다도 먼저 이동 철폐를 알고 한산도에 있는 통제사 이순신에게 국왕의 비밀 유지를 전달하러 갔어야 한다. 선조실록 1월 23일 기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신은 1월 13일 삼가현 및 의령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황신은 의령에서 김응서와 함께 요시라를 만났고, 이 만남에서도 요시라는 가토의 도해 일자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월 13일 까지도 황신 역시 가토의 도해 날짜를 모르고 있었다. 황신은 이날 삼가현에서 권율이 1월 13일 이순신을 만나러 한산도로 갔던 사실도 인지하였다. 선조실록과 비교할 때 한산도 이순신에게 선조의 명령을 전달하러 간 사람과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순신 사후 60여년 후 완성된 선조수정실록 기록 내용의 신뢰성에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5.6 이순신은 1597년 2월 10일 육군 장수 김응서와 함께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선조실록 1597년 2월 23일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적의 침공이 있던 1월에는 출전을 못했지만 적 침공 후 2월 10일 경상우병사 김응서 등과 함께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사실상 합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2월 10일 출전 시 가토도와 안골포 등지에는 왜적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어 부산으로 출전 후 적의 배후 공격이 우려되었음에도 이순신은 출전을 감행한 것이다. 가토가 침공하던 시기인 1월 12~14일 출전을 감행하지 못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토 침공 전 선조가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수군통제사 이순신과 육군 장수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협조를 잘 하라고 특별히 당부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2월 10일 부산 출전시에는 수군인 이순신과 육군인 김응서 두 지휘관의 합동작전 준비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6. 결론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이 체포 및 파직되어 백의종군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선조의 지시였던 ‘적을 바다에서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고 출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원인과 과정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및 선조수정실록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간되어 통용되고 있는 서적이거나 인쇄물을 분석해

보면 이들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이 선택적 혹은 혼합되어 인용되면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정유재란 시기 적 침공 전 선조의 출전 명령에 대한 이순신의 출전의지 조명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선조실록 기록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및 선조수정실록 등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은 핵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고니시(요시라)측은 결정적인 순간 가토 침공 전 침공 날짜를 조선측에 알리지 않았고, 이는 조선 조정과 수군 간 군사전략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였다. 선조의 출전 명령이 이순신에게 전달된 날짜가 1월 21일이라는 이충무공행록의 기록이나, 선조의 명령을 이순신에게 전달한 사람이 황신이며 가토군 침공 전 가토의 동선을 이순신에게 알려준 것으로 기록된 선조수정실록 2월 1일자 기록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순신에게 선조의 명령이 전달된 날짜는 1월 14일, 명령 전달자는 권율이며, 권율도 가토군의 침공일이나 동선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순신을 만난 것으로 선조실록 기록분석에서 확인된다.

둘째, 가토군 도해 전 1596년 12월 28일 이순신의 출전건의 요청이 조정에 도착하였고, 선조는 1월 2일 특별히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이순신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출전 허락을 했다. 수륙합동작전을 염두에 두고 한 당부였다. 선조의 명령이 이순신에게 전달된 날짜는 1597년 1월 14일이였다. 정상적인 문서의 전달소요 기간보다 늦게 도착되었다. 정략이 이순신 구명 상소문을 올리면서 ‘대개 변방의 장수들이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장군 스스로는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히 내린 분부가 그때 곧바로 전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선조의 출전 허락 명령이 지연된 점은 이순신이 가토 침공 전 적기에 출전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유재란 전 선조의 출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순신 사후 60여년 후 저술된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선조실록 기록과 비교해 보면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순신이 가토 침공 전 선조에게 출전 허락 요청을 할 만큼 출전의지가 강했음을 감안할 때, 이순신이 스스로 출전



불가 사유를 들어 출전하지 않았다는 1597년 2월 1일 선조 수정실록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출전 허락을 요청한 후 작전을 바꾸어 출전을 거부할 만한 이유를 본 연구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이순신이 시기적으로 안골포나 가덕도 등지에 오히려 가토군 침공 전보다도 강화된 왜군 세력이 주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97년 2월 10일 육군 장수인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함께 부산으로 출전을 감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토군 침공 전과 비교해 작전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토 침공 시기였던 1월과 어떤 측면의 작전환경이 달라졌을까?

이순신이 출전을 감행했던 2월 시기는 선조의 출전 허락을 확인한 후였고, 육군 지휘관인 김응서와 함께 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육군과의 협조가 이루어진 점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토군 침공 전 이순신이 출전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조의 출전 허락 지연 전달 및 육군과의 합동작전 협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 후기

본 연구는 저자가 청년기부터 가졌던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전쟁 중 군 통수권자인 선조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적의 침공을 앞둔 시점에서 출전을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하는 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충무공 이순신항로 탐사단 교수님 및 해군 선후배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Marck 13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 [2] Jo, S. D.(1986), Chungmugong Yi Sun-shin, Yeongyeong Publisher, p. 271.
- [3] Lee, M. W. (2004), The Sea Battle History of Limjin War, p.193.
- [4] Choi, Y. S. (2007), A Holy Place of the Nation 'Goha-do', Hoon, pp. 143-145.
- [5] Jang, H. G. (2009), Naval Fleet Commander Yi Sun-shin and Woo Eui-jeong Jeong Tak, Soonchunhyang

University Yi Soon-Sin Research Institute, Vol. 11. pp. 18-19 ([www.yiyeon.com](http://www.yiyeon.com)).

- [6] Jae, J. M. (2011), Yi Sun-shin (Baek-ujong-gun), Happy tree, pp. 54-56.
- [7] Lee, M. W. (2012), Yi Sun-shin Pyeongjeon, Seongandang, pp. 291-292.
- [8]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ujeongsillo (1643-1657), February 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9] Park, K. B. (2012), The translated Chungmugongjeonseo (Written by King Jeongjo in 1795), Vol. 3, Bibong Publisher, p. 354.
- [10] Bang, S. S. (2016), A Study on Jeong Tak's Singucha Saved Yi Sun-Sin Focusing on Yagpojib, Soonchunhyang University Yi Soon-Sin Research Institute, Vol. 24, pp. 21-22 ([www.yiyeon.com](http://www.yiyeon.com)).
- [11] Oh, S. J., Shin, J. H. & Park, H. J. (2015), The Translated Jingbilog (Written by Ryu, Seongyong), Hongik Publisher, p. 239.
- [12] Kim, H. G. (2019), The translated Leechoongmugong-Haengrok, Gaganam, pp. 87-88.
- [13]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ujeongsillo (1643-1657), February 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1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ujeongsillo (1643-1657), January 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1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16]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3rd, 1597 (<http://sillok.history.go.kr>).
- [17] Kim, J. S. (2015), Yi Sun-shin (From Okpo to Noryang), Gyowoo Media, p. 170.
- [18] Jae, J. M. (2011), Yi Sun-shin (Baek-ujong-gun), Happy Tree, p. 58.
- [19] Lee, B. S. (2018), Yi Sun-shin (Astronomy and Geographic Strategist), Gadian, p. 83.
- [20] Kim, J. D. (2012), Yi Sun-shin, Gadian, p. 269.
- [21]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October 5th-21st, 1596 (<http://sillok.history.go.kr>).
- [22]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November 1st-27th, 1596 (<http://sillok.history.go.kr>).
- [23]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December 5th-28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 [2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19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 [2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2nd, 1597 (<http://sillok.history.go.kr>).
- [26]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7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27]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8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28]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February 4th-6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29] Choi, Y. S. (2007), A Holy Place of the Nation 'Goha-do',

Hoon, p. 171.

[30]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February 23rd, 1597 (<http://sillok.history.go.kr>).

[31]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nd, 1597 (<http://sillok.history.go.kr>).